

불교 이로서 좋다

나현정 대한불교청년회 조직부장

“불안·허무가 희망으로”

맑은 향내음과 가슴을 울리는 풍경소리. 처음 절에 가서 느꼈던 그 편안함과 고요함을 잊을 수가 없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 길을 가다 절에 들어가게 되었던 건 운명이었을까.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던지 매일 매일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울던 기억이 난다. 16년 동안 학교만 다니다가 처음 맞게 된 사회에서는 힘든 일들이 지척

에 널려 있었고 난 참회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렵게 들어갔던 회사생활을 마감하고 대한불교청년회에서 본격적으로 부처님 일을 하게 되었다. 조계사 근처라서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있다면 향내음이나 목탁소리, 스님 기도소리를 매일 들으니 절로 신심이 나는 내 모습이다. 밥당에 둘러 절도 하고 염불하는 날이면 세세상생 지은 업장이 녹는 듯해 눈물이 난다. 세상사 무상하다는 것. 그 하나의 도리만 깨닫는다면 다시는 괴로울 일도 슬픔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무상함은 허무가 아닌 희망이라고 누군가 그랬던가.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닦으며 보내고 있다.

암흑 같은 어고시절이 지나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는 날아갈 듯 기뻐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가슴속에만 존재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4학년이 되어 허무하고 조그마한 불안한 그 시절 난 정식으로 불교를 알게 되었고 사모하게 되었다. 대학생불교연합회 불교아카데미를 통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도 심도 있게 불교를 접하게 된 나는 22년의 세월동안 삼복과 무명에 싸여 있었던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공부하면서 불교교리를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기쁘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흐릿한 말하는 초발심 시절이었던 것 같다.

담배를 끊으시다

① 사회 전체적으로 흡연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분위기. 주위에 흡연자들이 많아 담배에 노출될 기회가 너무도 많기 때문. 친구들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가족들 또는 사회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형이 담배를 피우고, TV나 영화, 드라마에서는 청소년의 우상인 연예인들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또한 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며 담배를 피운다는 것.

청소년 흡연 증가 이유

없다는 것. 많은 학생들이 흡연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는 학교도 많은 실정. 담배로 인한 피해는 담배를 피우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③ 담배 회사들이 청소년을 미래의 고객으로 유도하고 있다. 담배 회사도 기업이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는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수는 사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담배 회사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도 새로운 흡연자가 있어야 한다는 셈. 그렇기 때문에 흡연율에 감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 용납 분위기... 막는 어른 없어

‘봉사 점수’ ‘땀의 의미’ 함께

눈길 끄는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올해는 예년에 주류를 이루던 청소년·목욕봉사 등의 단순 ‘노력 봉사’ 차원을 벗어나, 가두 캠프인·농촌봉사활동 역사 현장 탐방·지역사회 안내 신문 만들기·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등 다소 ‘전문분야’의 봉사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다. 또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놀이문화’로 승화된 ‘캠프’형식의 프로그램이나 자연생태 체험 중심의 봉사프로그램들도 늘어나고 있다.

‘봉사점수’와 ‘땀의 의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성급 다가온 여름방학,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전국 불교계 각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단체 등에서 알차게 준비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에서는 ‘시간때우기식’이 아닌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눈길’을 끈다.<김철우>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도’형식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가두 캠프인 등 사회운동 성격의 자원봉사도 마련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관내 4층 강당에서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자원봉사자 기본 자세이외에도 부산아시아계열 성공 기원 가두 캠프인을 벌일 예정이다. 냉방사회복지관도 거리질서 캠페인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 홍보 행사를 갖는다.

채소재배·하천청소 등 농촌생활캠프

‘푸름이 봉사대’ 환경 주제 지역신문 제작

위안부 역사관 관람·시청각 교육 참가

지역 사회 속으로 찾아가는 봉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23일 부산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90여명의 ‘단발 청소년봉사단’을 결성한다. 이 봉사단은 정신지체아 방과 후 교실, 저소득층 자녀 교실 등에서 프로그램 보조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부산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50여명의 ‘푸름이 봉사대’를 조직해, ‘환경’을 주제로 한 ‘지역사회 신문 만들기’를 실시하고, 구미금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위한 청소년봉사단을 모집

가’ 봉사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다.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광주 일대 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 집’에서 제3회 청소년봉사캠프를 연다. 위안부 역사관을 관람하고, 시청각 교육 등 생생한 역사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삼천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7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소백산마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산책, 목욕봉사 등의 활동에는 50여명으로 구성된 ‘사이버올라볼예방 운동본부’ 학생이 참가한다.

청소년 담당= 김철우 기자 in-gan@buddhania.com

◆불교계 청소년단체 및 복지관 ‘자원봉사 프로그램’

Table with 4 columns: 기관명, 프로그램명, 일정, 문의. Lists various Buddhist youth organizations and their volunteer programs.

청소년 단선

9일간 청소년국토순례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는 7월 24일~8월 1일까지 ‘제9차 화랑정신 계승 청소년 국토순례’를 떠난다.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평화의 댐, 양구 선사박물관, 동학혁명위령탑, 망향의 동산 등 총 200km를 순례하게 된다. 참가대상은 서울 및 전국 초·중학생 200명. (02)849-7077

청소년 금연캠프 열어

사단법인 우리누리 청소년연회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7월 22일~24일까지 계룡산 감사 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 금연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에서는 출연청소년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자연과 함께 활동하고, 심상계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흡연에 대한 해악성을 다양한 실습을 통해 알게 함으로써 금연의지를 불어넣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참가대상은 중·고등학교 70명. 참가비는 1인당 4만원. (031)217-3407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하이텔 불교동호회

정보수집 10년... ‘불교자료의 보고’

지역·테마별 소모임 큰 특징

우리 속담에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십년동안 금강 신심을 유지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네티즌 동호회가 있어 화제다. 1992년 6월 창립한 하이텔불교동호회(이하 하불동 대표이사 유보련)가 바로 그 주인공. 하불동은 지난달 22~23일 전북 남원 실상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서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불동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반의 정을 나누었다.

하불동은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산실로 유명하다. 실체가 없는 사이버 공간, 그것도 PC 통신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현실을 극복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사찰순례나 가서 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오프라인(法觀)을 일상에서 매일 독송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역시 하불동은 다르다는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하불동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 테마별 소모임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해 경상,



◇6월 22~23일 전북 남원 실상사에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사진.

강원, 전라, 제주, 충청 등 전국적으로 지역모임이 결성되어 있고 매달 정기법회를 보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또한 테마별로는 95년 3월 한 장애우불자의 ‘우리도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싶다’는 작은 소망으로 시작되어 매년 두차례 장애우와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모임을 가지는 칠연회, 그리고 다도 소모임 명동계 등이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갖고 있다. ‘불교자료의 보고’라는 것도 하불동의 자랑. 10년동안 회원들이 하나 둘씩 하불동에 올린 자료가 이미 불교계 최고 수준이며 지난해에는 생활속의 잔잔한 이야기부터 불교교리, 신행담 등 회원들이 올린 글을 모아 <부처세상>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김두식 기자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강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금세기 최초공개 고차원 치유에너지활용법 전수생 모집. 질병으로 변형된 DNA를 정상적인 DNA로 복원시키는 체계화된 학문교육. 자격: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일반인, 주부, 남여적장인, 해외 이민 희망자.

실버타운 입주안내. 1. 입주자격 및 절차: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분 및 60세 미만 부부. 2. 구비서류: 건강진단서,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 1부, 증명사진 3장.

圓梵音 범종! 범종! 자명(自鳴)범종!! 귀의삼보 하옵고, 諸方寺庵 주지스님께 이 기쁜 소리가 매아리 되사이다. 小人이 十餘年前에 부처님의 生死解脫法이 세상 온 누리에 울려 퍼지기를 발원!!